
 금융위원회	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size: 2em; font-weight: bold;">보 도 참 고</div>				 금융감독원
	<b>보도</b>	<b>배포 후 즉시</b>	<b>배포</b>	2020.1.7.(화)	
<b>책 임 자</b>	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손 주 형(02-2100-2830)	<b>담 당 자</b>	최 범 석 사무관 (02-2100-2836)		
<b>책 임 자</b>	금감원 은행감독국장 이 준 수(02-3145-8020)	<b>담 당 자</b>	김 부 곤 팀장 (02-3145-8040)		

**제 목 : 금융당국은 규제 사각지대 없이 대출규제를 운영  
하고 있으며, 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 
관리하고 있습니다.**

☐ 금융당국은 규제 사각지대 없이 대출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,  
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.

- ① 주택임대업·매매업의 경우, ‘최근 부동산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 
방안(관계부처 합동, ‘19.10.1.)’을 통해 투기지역·투기과열지구의  
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, 주택임대업·주택매매업 법인 대출에  
대해서도 LTV 규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.

\*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’18년 9.13대책 당시 LTV 규제 既 도입

- ② 주택임대업·매매업 이외의 업종의 사업자 대출의 경우 주택을  
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 
받을 수 없으며,

- ‘주택시장 안정화 방안(관계부처 합동, ‘19.12.16.)’을 통해 동 규제의  
적용범위가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되었습니다.
- 또한, 기업이 사업자금 목적으로 받은 대출을 주택구입에  
사용할 경우 이는 용도외 유용에 해당되며, 금융기관은 이를  
확인하는 즉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.

- ③ 새마을금고·상호금융권 등에 대해서도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및  
행정안전부의 협조 등을 통해 타 업권과 마찬가지로 규제준수  
상황 등을 엄격하게 감독하고 있습니다.

④ 참고로, 외국인의 경우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LTV 등 대출규제 적용을 받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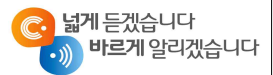
□ 향후에도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은 규제공백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제를 보완해 나가는 한편,

○ 금융기관의 규제 준수여부를 점검하면서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.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 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  
[prfsc@korea.kr](mailto:prfsc@korea.kr)



**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**